

한류스타 제대 '러시' ... 드라마 시장 '활짝'



주원



김수현



이민호



임시완



지창욱

(한한령(陳韓令·한류제한령)에도 여전히 중국 내 입지가 확고한 한류스타들부터 안방극장에 뒀다 하면 흥행을 보장하는 배우들까지, 2019년에는 톱배우들의 대거 제대가 예고됐다.

스타트를 끊은 배우는 주원(본명 문준원·31)이다. 기초군사훈련에서 1등을 차지해 강원도 철원군 백골부대에서 조교 생활을 했을 정도로 모범적인 군 복무를 한 그는 내년 2월 15일 제대한다.

'제빵왕 김탁구'(2010)를 시작으로 '오작교 형제들'(2011), '각시탈'(2012), '7급 공무원'(2013), '굿 닥터'(2013), '용팔이'(2015), '열기적인 그녀'(2017)까지 찍는 드라마마다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한 주원이 제대 후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봄에는 한류스타들이 화려하게 복귀한다. 배우 임시완(4월 10일, 이하 제대일), 이민호(5월 11일), 지창욱(5월 13일)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7월 입대해 임시완(30)은 육군 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 중으로, 올해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SBS 박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행사 진행을 맡아 능률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다.

주원·김수현·이민호·임시완·지창욱 내년 군 제대 예고

주원급 남자배우 갈증 해소·중국 '한한령' 잠재울지 주목

제국의아이들 출신에서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배우로 완전히 입지를 굳힌 그는 입대 전에도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도 많이 확보했다.

이민호(31)는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에 교정용 철심을 박은 병력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년 소집 해제된다.

'꽃보다 남자'(2009)를 시작으로 '개인의 취향'(2010), '시티헌터'(2011), '신의'(2012), '상속자들'(2013), '푸른바다의 전설'(2016)로 한류스타로 거듭난 그가 한한령 해제 조짐이 본격화할 내년, 화려한 복귀에 성공할지 기대된다.

지창욱(31)은 주원과 마찬가지로 백골부대에서 복무 중이며, 최근에는 배우 강하늘, 가수 김성규와 군 뮤지컬 '신홍무관학교'에 출연해 군에서도 분업을 삼렸다.

지창욱 역시 이민호 못지않은 한류스타다. '웃어라 동해야'(2010)부터 '무사 백

동수'(2011), '기황후'(2013), '힐러'(2014), '더 케이투'(2016), '수상한 파트너' 등으로 중화권에서 신(新)한류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여름에는 옥택연(6월 3일)과 최고의 한류스타 김수현(7월 22일)이 군복을 벗는다.

두 차례 디스크 수술을 받고도 현역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결국 육군 제9사단에서 복무 중인 옥택연(30)은 지난 국군의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완벽한 거수 경례를 선보여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최근 소지소속사인 51K로 동지를 옮기며 제대 후 본격적인 연기를 선보일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미는 김수현(30)이 장식한다. 한류스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그는 입대 직전 선보인 영화 '리얼'을 제외하면 영화 '도둑들'(2012)과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드라마 '해를 품은 달'(2012)와 '별에서 온 그대'(2013) 등 하

는 작품마다 대부분 흥행을 날린 전력을 자랑한다.

연예계에서는 "한한령이 시작될 때쯤 입대해 풀릴 때쯤 나오는 김수현과 이민호는 참 스타성을 타고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이다. 실제 두 사람 제대 후 오랜 기간 국내 시장을 괴롭혔던 한한령도 잠재울지 주목된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18일 "미디어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19년도 드라마 제작 편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주원급 남자 배우들에 대한 갈증 해소가 기대되고, 특히 중국시장의 수요가 높은 일부 배우는 한한령 완화 분위기 속에서 더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양세종, 우도환, 장기용, 정해인 등 올해 사랑받으며 치고 올라온 신인들이 내년에도 톱배우들의 제대 후에도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역시 관심사다.

정해인은 영화 '우열의 음악앨범'으로 스크린에 도전하며, 장기용은 OCN '블루 아이'로 변신을 꾀한다. 양세종과 우도환은 JTBC 새 드라마 '나의 나라'의 주연으로 아예 함께 나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연합뉴스

빌보드가 뽑은 올해의 K팝 레드벨벳 '배드 보이' 올해의 앨범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미국 빌보드가 올해 최고의 K팝 노래로 레드벨벳의 '배드 보이'(Bad boy)를 뽑았다.

또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는 방탄소년단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가 뽑혔다.

빌보드는 17일(현지시간) '비평가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K팝 20곡'을 보도하며 1위에 오른 레드벨벳의 음악 세계를 조명했다.

빌보드는 "배드 보이"는 풍성한 사운드와 생생한 색감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레드벨벳의 팝파탈적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며 "R&B의 매끄러움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해 가장 완벽한 레드벨벳 작품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2위는 펜타곤 '빛나리'가 차지했다. 빌보드는 "빛나리"는 독특하면서도 조금은 엉뚱한 찬가다. 펜타곤 멤버들이 내는 비유, 정교하게 훈련받은 발성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목소리들이 정말 놀랍다"고 치켜세웠다.

이밖에 올해의 노래 3위는 방탄소년단 '페이크 러브'(Fake love), 4위는 아이유 '삐삐', 5위는 샤이니 '내가 남겨둔 말', 6위는 헤이즈 '젠가', 7위는 아이콘 '사랑을 했다', 8위는 에이핑크 '1도 없어', 9위는 아이즈원 '리비앙 로즈', 10위는 선미 '주인공'이 이름을 올렸다.



레드벨벳



방탄소년단

올해 최고의 앨범 영예는 방탄소년단에게 돌아갔다.

빌보드는 '비평가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K팝 앨범 20'을 공개하며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은 지난 2년간 세계 음악시장의 정성에서 새 역사를 만들었다. 그 와중에 "자신을 사랑하라"는 주제의식을 엮어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를 만들어냈다"면서 이들이 5월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와 9월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빌보드 200' 1위를 잇달아 차지한 사실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함소원-진화 부모 됐다 ... "어제 예쁜 딸 얻어"

18살 차 한중 커플인 함소원(42)-진화(陳華·24) 부부가 부모가 됐다.

부부가 출연 중인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 측은 18일 "함소원이 전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이날 건강하고 예쁜 딸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재 함소원은 천하 등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회복 중이다. 두 사람의

출산기는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1997년 미스코리아 태평양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함소원은 주로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중 천하와 올 초 연인 신고를 해 화제가 됐으며, '아내의 맛'을 통해 국경과 나이 차를 극복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밤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붉은 달 푸른 해(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접속! 무비월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큐	0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슬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한번에 몰아보기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삼국지 북방>	12:00 EBS 정오뉴스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30 EBS 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발칸의 매혹에 빠지다 크로아티아3부 이스트리아 미식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08:30 미니특급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화산섬기행 3부 귀를 기울이면 그 숲에는>
08:45 랄랄라 뿌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특별기획 <미래, 교육을 묻다>
09:00 엄마 까투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즈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30 랄랄라 뿌우(재)	24:45 지식채널e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4:50 세계의 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파래 달걀찜과 매운 고구마볶음>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9일(음 11월 13일 乙酉)

<p>子 36년생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48년생 조금 늦게 조정한다면 적종할 수도 있다. 60년생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72년생 독특한 요령이 필요한 때이다. 84년생 정세 파악에 능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34</p>	<p>午 42년생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54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66년생 대상자는 반드시 내부에 있으니라. 78년생 판이한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90년생 빨리 선화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3, 65</p>
<p>丑 37년생 급격한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49년생 그것으로는 실익이 없으니라. 61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 73년생 발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85년생 최소한의 요건에 맞추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26, 55</p>	<p>未 43년생 엇비슷하여 낯고 못함을 정하기가 어렵다. 55년생 감안하지 않는다면 평정을 드러낼 수 있다. 67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목전의 상황에 충실하자. 79년생 애매하다면 전례에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91년생 오감을 만족 시키는 기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9, 27</p>
<p>寅 38년생 절대로 주관을 잃지 말라. 50년생 빨리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다. 62년생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다. 74년생 실행의 규모와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86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부가적 이익이 달라지겠다. 행운의 숫자 : 86, 59</p>	<p>申 44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56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라. 68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 있다. 80년생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92년생 분명하게 절제하지 않는다면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8, 30</p>
<p>卯 39년생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면 아니 되겠다. 51년생 즉행하지 말고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임하라. 63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75년생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87년생 절대적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행운의 숫자 : 56, 54</p>	<p>酉 45년생 경험자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57년생 진행하는 흐름이 일정하지 않으니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낫다. 69년생 복합적 파생 효과가 매우 크다. 81년생 내키지 않으면 재빨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93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48, 62</p>
<p>辰 40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다. 52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4년생 평상시에 몸치 찾던 것이 코앞에 와 있으니라. 76년생 판세의 변화를 가져 올만한 일이 생긴다. 88년생 미리 준비해왔다면 지금부터 빛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2, 87</p>	<p>戌 34년생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46년생 세태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58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70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 될 것이니라. 82년생 내내치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21, 94</p>
<p>巳 41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책하기 힘들 것이다. 53년생 기존의 형태가 끝없이 반복되는 정황일 뿐이다. 65년생 지속 가능한 것에 주력함이 무방하다. 77년생 따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89년생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4, 82</p>	<p>亥 35년생 기다려 봤자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47년생 용호상박의 치열한 경쟁이 보인다. 59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웃는 것은 모자라. 71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자신을 엄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83년생 꿈꿔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65, 39</p>